

만족도 높지만 불자들 무관심이 문제

서래노인요양센터, '어르신들 영양보호사 선호' 청년불자들의 참여 바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의 바람이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라 볼 수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이하 대불청)에서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불청은 서울 강북구 변동동에 서래노인요양센터(센터장 윤형숙)를 설립해 요양보호사들과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이나 요양원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연결해 주고 있다. 방문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래노인요양센터에는 요양보호사 20명이 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을 판정받은 어르신들(15~20명)에게 월~금요일 하루 4시간씩 방문 요양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80시간)을 일하고 급여로 52만원을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목욕, 방문요양,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도우며 각 가정의 노인수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불청이 서래노인요양



요양보호사가 재가 방문해 노인을 돌보는 모습. 대불청은 청년 불자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재가 노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이 남는다. (사진=현대불교DB)

센터를 개소한 것은 청년 불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활동력 향상 등을 고민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대불청은 재가 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해 청년 불자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함으로써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불

교계는 2009년 개소한 서래노인요양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래노인요양센터 20명의 요양보호사 중 4명이 불자이고 나머지는 개신교이다. 서래노인요양센터가 설립될 무렵, 윤형숙 센터장은 서울 동합동에서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불

교계는 2009년 개소한 서래노인요양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래노인요양센터 20명의 요양보호사 중 4명이 불자이고 나머지는 개신교이다. 서래노인요양센터가 설립될 무렵, 윤형숙 센터장은 서울 동합동에서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불

어르신들은 불자 요양보호사를 선호하는 만큼 청년 불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보람 사회복지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방문 요양센터는 없지만 산하의 복지관, 노인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불청이 부설로 운영하는 서래노인요양센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화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8년 4월 개설된 화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지금까지 180여 명이 요양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이보람 사회복지사는 "현재 활동하는 분들은 20여 명이다. 이 중 2명이 서래노인요양센터에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래노인요양센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수급대상자 어르신은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어르신은 매월 15%(장기요양보험 △1등급 17만 1000원 △2등급 14만 5500원 △3등급 12만 2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02)939-0079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가치있는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감사

지도사 평가회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6월 29일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1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상반기 지도사 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에서는 교육 지도사 22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활용해 모의수업을 하며 서로의 교수법을 참관하고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및 양육지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진오 슌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실시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더 많이 알게 됐다.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이 지도사의 역할이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지도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어 지도사 조현아씨는 "다문화가정에 처음 방문 교육을 나갈 때 힘들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이 늘고 수업시간을 기대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마

지막 수업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 지도사를 양성해 다문화 가족의 아동 양육을 돕고 부모 역할 정립을 돕기 위한 봉사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9일~6월 28일 1차 방문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정 89곳에서 한국어 교육·임신 출산·아동 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2차 사업은 8월 2일~12월 19일 88가정에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북 김천시와 칠곡군이다. 방문교육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439-8279)나 칠곡군청(054-973-3321)에 신청·상담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선주 기자

"소통의 장 널리 알릴 것"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김희라씨 위촉

원로배우 김희라씨가 제3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7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우 김희라씨를 제3회 대한민국의 서울노인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노인영화제는 '노인'과 '미디어'를 매



가섭 스님과 김희라씨가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2008년 시작된 이래 노인영화감독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로 세대간 소통이 가능한 축제의 장으로서, '노인이 직접 제작한 영화'와 '노인을 주제로 한 영화'로 나누어 노인 뿐 아니라 젊은 감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관장 가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세대의 감성과 시대가 담긴 영상을 통해 노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깨우고, 우리 사회의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의 영상을 통해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희라씨가 영화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홍보대사 김희라씨는 "많은 분들이 노인영화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일단 그것을 알리고 젊은이들이 가진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라고 말했다. 제3회 서울노인영화제는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4층 시네마테크온 유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02)739-9501 박선주 기자

■ 생명나눔 이달의 환우 박선미씨

엄마만 건강하게 옆에 있어준다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이하 생명나눔)는 매달 한 명씩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7월의 환자는 화염으로 화상(삼재성 2~3도, 54%)을 입은 박선미(여·44세)씨이다.



생명나눔이 선정한 이달의 환우 박선미(오른쪽)씨와 아들 태호, 태호는 집이 화재로 전소돼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엄마 병문안은 빼먹지 않는다.

2010년 5월 14일 예기치 못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박선미씨. 박씨는 현재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다

아직 치료를 여러 차례 더 해야 하지만 고액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시술을 중단한 상태이다.

피부이식수술을 위해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7년 전 이혼한 선미 씨는 간질과 우울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모자는 국가에서 나오는 68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태호의 소원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그저 엄마가 빨리 나서서 건강해 지는 것이다. 엄마만 건강하게 옆에 있어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박선주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30집 발매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불기 2554년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찬불동요 앨범 '풍경소리 30집'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30집에는 총 8곡(△부처님 맞이 △우리스님의 부채 △부처님이 들려 △Let's start △푸른 잎 차 △별과 달에게 △빌고 빌어요 △우리스님 회색 옷)이 수록돼 있다. 또 반주음악도 실려 있어 어린이들과 지도교사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수월하게 했다.

풍경소리 30집에 담겨있는 음악들의 음원은 키즈북다홈페이지(www.kidsbuddha.org)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CD구입을 원한다면 좋은벗 풍경소리에 문의해 구입할 수 있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30집의 앨범이 나오는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인연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심산 스님(동편 이사장·홍법사 주지)이 500개를 사셨다. 앞으로 찬불가를 사랑하는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1996년 첫 찬불동요앨범을 선보이고 1년에 두 차례씩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02)723-9836 박선주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던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리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연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길 신앙인 여러분을 열림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준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